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編輯人 宋景太
印刷人 金政坤
編輯局長 裵永斗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130—06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51
☎ 967—8133
969—6875

(每月 初日發行)

<協會指針>
農民所得增大
生産輸出增大
國民保健向上

會長訓
1. 最大의 봉사
1. 最大의 협동
1. 最大의 노력

(無科配布)

中央共販場
☎ 967—4984
☎ 965—9551

92年度 第23次 定期總會 盛了

92年度 1억9천만원 規模의 豫算案 編成 의결

新任監事 2人選出

協會는 지난 3월31일 강남 반도 유스호스텔에서 1백67명의 任員및 分事務所長들이 參加한 가운데 創立以后 23번째의 定期總會를 盛況理에 開催한바 있다。

◇제23차 총회광경

企業이 創立된지 3年이 지나면 도산의 위협성은 면할 수 있다 하였고 10年이 지나면 기반이 확립된다 하였으니 이제 23년이란 4반세기를 맞이하게된 協會는 會勢伸張을 여실히 반영하듯 總會벽두의 분위기는 매우 고조된 상태였다。

이윽고 1백67명의 會員및 分所長들이 參席하므로서 76%의 성원을 이루게 되었으니 제23次의 정기총회를 개회한다는 宋의장의 선포가 있었다。

▲국민의례에 이어 本會를 中心으로 한 對內外 會員들에 對한 공로패 시상식이 있었는데 年例的인 것과는 달리 간접적인 생약재 계통출하자 및 삼도시호계약재배에 공로가 많았던 12명에 대한 감사패및 표창장 그리고 두툼한 부상이 수여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이구동성으로 평가하였다。(※시상자 명단은 기사하단 참조)

▲송경태의장의 인사소개：송회장은 23차 총회에 즈음한 그의 인사말에서 향후 10년간의 농림수산부 농어촌 유통구조개선지원사업규모 일부를 소개함을 전제로 하면서 총 규모 41조7천억원중 9조7천억원이 농촌기계화및 단지화 조성 사업에 기여토록 책정되어 있으니 우리는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체 수권 태세를 갖추는 창의력을 총 집결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놓여있다。

향후 2년간에 걸쳐、대단위 생약가공 시설을 단지화 집산 지역에 설치하여 출하와 판로、생산자와 소비자간에 편의한 소득원을 제공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입안중에 있고 조만간 당국의 반영을 얻도록 노력하겠으니、각급 간부급 회원들의 적극적 지원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강조 하였다。그외에 삼도시호 2년간의 경험을 결과의 성패에 구애되지 않고 삼도시호、황기、당귀등 3개 품목으로 확대 계약 재배에 들어갔으니、지역 책임자는 물론 여기에 모인 간부급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생산성과 향상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작년에 설치하지 못하였던 재배 연구 기술분과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기 확보 조성한 생약안정기금 운용에 대하여 철저한 대 생산자보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수급조절에 기여할 것을 여러분 앞에 공시한다고 말하면서 82년도에 책정된 현행 회비의 모순과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협회 기능 및 인원 장비의 확장 최저 인건비 수준을 다소 보충해 주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서 부득이 회비를 1백%인상 할 수 밖에 없었음을 충분히 양해하여 주시고、예산 편성안을 잘 처리해 주기를 당부하는 바라고 말하였다。

▲농림수산부 잡특과장 최연홍씨의 격려사소개

본회 23차 총회를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내방하신 농림 수산부 최연홍 잡특과장은 그의 격려사에서 비효율적인 농산물의 대체 작물로서 약용작물의 관심과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민·관 협력으로 선별 생산 조절을 잘해 나간다면 국제 경쟁력 과 고 소득원을 계속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과잉 생산의 예방과 수입쿼타 조정에 관계부처와 가일층 협조

〈2면으로 계속〉

連載 韓方순례 〉6〈

〈續〉

2、사지(四肢)의 상태와 각 병증들

①수족을 움직이기 불편할 경우

수족을 움직이기 불편한 것은 비장이 나쁘기 때문이다。비장은 모든 근육을 관장하므로 비장이 나쁠때 입술을 보면 탄력을 상실하고 있다。

②사지에 탄력이 없을 경우

사지의 동작이 민첩하지 못하면서 탄력이 없고 도약력이 약하며 우둔한 동작이 나올때 비장이 약함과 동시에 근육의 수축작용도 약하며 간장까지 약하다。

③관절의 굴절이 어려울 경우

관절의 굴절이 순조롭지 못하여 잘 펴지지 않든가 뼈속이 노곤하여 뻣뻣한 사람은 비장과 신장이 동시에 허약해진 상태인 것이다。

④허벅지가 시렵고 무릎이 쑤실 경우

우리는 흔히 힘줄기 당기는듯 하다든가 무릎이 아프다、뼈 마디가 쑤신다、허벅다리가 시렵다 또는 장딴지에 경련이 난다든가、살이 노곤하다든가 라는 말들을 많이 듣는다。

그러나 이같은 몸의 이상을 말하는 증상이 내장기의 이상에서 연유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는 마치 수원지의 물이 말라서 나오지 않는 물을 단순히 배수관이 나빠서 물이 안나온다고 불평을 하는것과 흡사하지 않을까?

실제로 수도관을 가지고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사람의 몸에 이르면 정말로 수원지(内臟)는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 수도관만을 문제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리하여 부분적이나 국소적인 미봉책에 머무르는 즉효적인 건강법이나 치료법으로 그치고 마는 것이다。

⑤요통、슬통의 경우

요통이라든가 슬통(膝痛)、신경통 경견완증후군 등 병명을 열거할때는 편리하고 효과적인 요법도 있지만 몸전체의 건강을 유지하는데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요법들인 것이다。

흔히 나타나는 장딴지의 경련등이 일어나면 장딴지에 대한 응급조치만을 생각하지 비장이 약화되어 있다든가、동작의 물리적인 작용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여 그렇기 때문에 비장에 유효적인 식품이나 처방 등의 대응책은 전혀 손을 쓰지 못하는 것이다。

동양의학에서 오장식(五臟食)을 기본으로 삼고있는 것도 이상과 같은 인체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편협한 인체관과 유기적인 육체의 작용을 표준하지 않는 오늘날의 많은 건강법의 착오가 치료법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생각하면 지극히 한심스럽기만 하다。

인체관의 착오에서 오는 피해는 사지의 건강법에도 노골적으로 드러나 움직이기만 하면 건강하다든가、힘이 있다고 믿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정말로 바른 동작에 의한 단련을 통하지 않을때 사지의 기능은 물론 그와 연유된 질병자체도 악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팔、다리의 올바

〈2면으로 계속〉

公示事項

▲協會定款 第10·11·12條에 依據 1992年度 第23次 定期總會結果를 다음과 같이 公示함。

〈議決事項〉

1、議案

▲1991年度 事業實績및 收支決算報告：原案承認

2、議案

▲1992年度 事業計劃書：原案承認

▲1992年度 收·支豫算編成：原案承認

3、議案

▲新任監事 2名 選出：

許 永(김천시 공판장장)

崔孟鎬(부산금정구사무소장)

1992年 4月 1日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長